

안보질서 대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좌표 모색 - 2025 세계안보학대회를 마치고

입력 2025.09.28 15:50 업데이트 2025.09.28 15:53



이숙연 교수 국방대학교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12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회 세계안보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개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해 격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대응방향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제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 조명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로렌조 스카라자토 박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비와 무기 구매가 역대 최고로 증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군비 증강시대를 진단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필립 세틀러존스 박사는 역제를 위한 파트너십이 아닌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통한 유럽과 인도-태평양 연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앙킷 판다 박사는 북한 핵 문제의 현실적 접근법으로 비핵화보다는 안정적 공존을 제안했다.

이러한 국제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방식에 다양한 관점이 제시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라몬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민주화와 탈냉전 시기부터 명확한 대전략을 유지해 온 점을 평가했으며, 일본방위연구소 고이케 오사무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명확성으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한미 관계 안정이 한-중 관계 진전의 전제가 되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제시하며 미-중 경쟁상황에서 직접적 연루와 이분법적 선택에서 벗어나는 게 실용외교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안보상황하에서 한국 국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박사는 한국 국방정책이 당면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으며,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박사는 경제와 안보 목표가 통합되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국방대 설인호 교수는 한국이 향후 인도-태평양 질서에서 '능동적 전략적 기여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전-충청권에 집중된 국방허브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독특한 세션 구성이 돋보였다. K방산 세션에서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미래 전장을 고려한 무기체계 발전방향과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소개했다. 이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중소 방산기업 육성과 지자체 연계 신규 사업 등으로 건전한 방산생태계를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계안보학대회는 변화하는 국제안보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 학술행사로 평가된다. 국방대는 SIPRI, RUSI,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킹스칼리지, 일본방위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안보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동시에 대전지역에 집중된 각 군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은 물론 주요 방산기업들을 한자리에 결집하며 국내외를 연결하는 안보허브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군비 증강시대 진단부터 K방산 발전전략, 각 군의 미래 전력계획에 이르기까지 안보 전 분야를 아우른 종합적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론과 정책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성과가 실제 국방·안보정책에 반영될 때 한국은 안보질서 대전환기의 도전을 새로운 발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